

##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의 검증\*

홍세희\*\* · 박언하\*\* · 홍혜영\*\*

### 초 록

본 연구는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변화패턴을 추정하고 이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 또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자료의 중2, 중3, 고1 총 3년간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첫째, 자아개념은 남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초기치(중2)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자아개념 수준을 보였고,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변화율(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여자의 증가율이 남자의 증가율보다 유의하게 높지는 않았다. 둘째, 초기치에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대부분의 부모, 또래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기치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아개념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부모, 또래)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부모, 또래변인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고, 여학생은 부모의 불화, 또래관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불화가 심할수록 자아개념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자아개념의 변화, 다층모형, 부모와 또래 영향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사업 지원에 의해 연구됨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I. 서 론

자아개념은 일생동안 생활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으로 심리학, 교육학 등에서 오랫동안 연구되고 있다(Marsh, 1990). Schaffer(2000)는 자아개념은 출생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발달해가는 것이라고 했다. 자아개념은 주어진 사회환경 속에서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설명하고 자신에 대한 인상이나 감정 그리고 태도를 조직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사라와 박혜원(2005)은 자아개념은 자기 자신이 속해있는 즉, 가정, 사회 넓게는 국가 속에서 하나의 도식(schema)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즉 자신을 둘러싼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고 자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알고 평가하는 것이다.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주목받는 것이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이라는 개념이다. 중요한 타인이란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이며 자신의 지각, 관념 및 태도 등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Marsh, 1990). 즉, 청소년들의 중요한 환경의 장이 되는 가정과 학교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부모, 또래 등을 말한다. 청소년들은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통해 자기자신에 대해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아관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Chubb et al., 1997).

청소년기에 자아개념의 형성에 있어서 부모와 또래가 중요한 타인으로서 폭넓게 연구되어져 왔다. 먼저 부모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관여가 자녀의 자아 개념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기와 비교하면 부모의 영향은 청소년기에 와서 상대적으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자아개념 발달에 중요하다.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Hay와 Ashman(2003)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에게 정신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올바른 행동에 대한 조언자가 되고, 청소년들의 자아개념형성에 결정적인 참조자가 된다고 했다. McCormick과 Kennedy(1994)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한 자녀일수록 궁극적으로 보다 높은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올바른 자아개념을 형성하였다(Robert & Bengston,

1996). 그리고 부모의 정서적 보호가 긍정적인 자아개념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했을 때 자녀들은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였다(Rosenberg, 1985).

국내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의 영향이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이사라와 박혜원(2005)은 부모의 관여 및 높은 지지는 자녀의 성숙한 자아개념 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순형과 이영미(1993)는 통제차원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처벌, 강제, 제한을 한 경우 자녀의 자아개념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또한 부모의 무관심한 태도나 철회, 지시적이거나 권위적인 부모유형은 부정적인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초래하여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대화 및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자녀가 부모로부터 억압받거나 대화의 빈도수가 낮을 경우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됐다(권혜진 등, 2005). 그리고 부부갈등이나 부부폭력 등이 있을 때, 부부사이가 좋지 않을 때 청소년기 자녀가 불안과 긴장을 하고 불만을 증대시켜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며,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산·문재우, 2006).

청소년에게 중요한 타인 중의 하나로 또래를 또한 들 수 있다. 이동기까지는 부모, 형제 등 가족과의 관계가 주된 사회적 관계였지만, 청소년기는 가족으로부터 독립욕구가 강해지면서 또래집단에 상대적으로 강한 애착을 보이는 발달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또래는 매우 중요한 정서적 지지의 자원이자 자아개념 준거의 틀이 되기도 한다(김계현 외, 2003). 또래집단에서 인기아가 비인기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보다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갖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자아개념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먼저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유능성 동기를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자아기능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Bukowski et al., 1989; Vandell et al., 1994). 그리고 또래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래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McGuire, 1983). 국내연구의 경우도 국외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다. 또래의 수용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나

고(이은혜, 고윤주, 1999; 오원정, 1999),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이 상실되고, 전반적으로 자아가치감이 낮게 나타났다(최미경, 2000).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부모와 또래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혹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Baldwin, & Hoffmann, 2002).

연령증가에 따라 자아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은 다양하다. 김기정(1995)의 초5학년, 중, 고, 대2학년생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의 발달과 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중고생보다 긍정적 자아개념을 보였고, 초5학년과 대2학년이 중고생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보고하는 V자형 변화추이를 나타냈다. 다른 연구에서도 초등학교와 대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중고생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화·전경숙, 1995; 최정미·김미란, 2003; Mendelson & White, 1985; Rosenberg, 1985). 연령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행하는 V형 발달현상을 보이는 이유로 15-16세 전후로 자아개념이 가장 혼돈을 겪는 시기이고 그 이후에는 점차 자아통합이 이루어지 것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자아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안정된 자아개념을 형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적 연구방법으로 한 연령과 다른 연령을 비교함으로써 발달적 변화를 추론하고 있는 한계점을 갖는다.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있어서 성별차이에 대한 국내외 기존연구 또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진화와 전경숙(1995)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신체적 및 운동적 영역에 있어서 남학생의 자아개념이 여학생의 자아개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인지적, 사회적 영역 그리고 전반적인 자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진만(1995)은 학업 영역에 있어서 중학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는 성별과 무관함을 보고했다.

그러나 Mboya(1999)에 의하면 자아개념의 영역별에 따라서 남녀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리더십 또는 성취도에 있어서 더 높은 자아개념을 보이나 사회적 및 심리적 측면에서 남녀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다. Cole과 그의 동료들(1999)은 초등학교동안에는 남녀간 차이가 없지만, 중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평균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낮은 자아개념을 갖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자신의 미래와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제한적 견해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적은 자신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최정미와 김미란(2003)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반면에 신은영과 김누리(2004)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의 평균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학생의 자아개념의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성별차이를 요약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거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거나 하는 등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볼때 자아개념에 있어서 뚜렷하고 일관된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체 및 운동 영역, 성취영역에서의 자아개념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지만, 정서영역, 친밀감,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여학생이 높거나 성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첫째, 청소년기에 자아개념이 환경적 영향, 즉 중요한 타인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나 대부분 횡단적 연구로 한 개인 안에서 자아개념이 어떤 양상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 밝혀내는데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해내지 못하였다. 둘째, 부모효과와 자아개념 사이의 관계를 본 연구는 많이 있으나 부모효과가 자아개념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부모효과의 하위차원을 자세히 정의하고 그 차원의 변화에 대한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지 못하였다. 셋째, 연령증가나 성별에 따른 연구들간의 상이한 결과들이 국내외 연구에서 제각각 보고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재정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아개념의 종단적 발달변화추이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자아개념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인 부모와 또래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각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발달 양상이 어떻게 다른가? 둘째, 부모요인과 또래요인이 자아개

넘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한국 청소년 패널의 중2패널 1, 2,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1차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총 3,449명이었으며 이 중 남학생은 1,725명, 여학생은 1,724명으로 각각 50%를 차지하였다.

### 2. 측정도구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기간 동안 자아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영향변인과 또래영향변인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것이다. 자아개념에 대한 문항은 <표 1>과 같다. 이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세 시점에서의 신뢰도 계수 알파는 각각 0.73, 0.71, 0.75로 나타났다.

<표 1> 자아개념 문항

| 문항번호 | 문항내용                            |
|------|---------------------------------|
| 1    |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2    |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3    |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4    |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5    |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6    |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

자아개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관계와 또래관계를 검증하였다.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의 부모영향에 관한 문항은 <표 2>과 같다. 이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표 2> 부모영향에 관한 문항

| 문항번호 | 문항내용                                     |
|------|------------------------------------------|
| 1    |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 2    |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
| 3    |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
| 4    |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
| 5    |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
| 6    |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
| 7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
| 8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
| 9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
| 10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
| 11   |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
| 12   |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
| 13   |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
| 14   |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

<표 2>에 제시된 14개의 부모영향에 관한 문항을 바탕으로 하위차원을 정의한 결과 문항 1, 2, 3번은 부모의 애정과 이해를, 문항 4, 5, 6번은 부모와의 대화를, 문항 7, 8, 9, 10번은 부모의 외출감독을, 문항 11, 12번은 부모간의 불화를, 문항 13, 14번은 부모의 학대를 각각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세희, 김지연 2006).

또래관계 변인으로는 “나는 학교에서 학교또래들과 잘 어울린다.”란 단일문항을 사용하였다.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에는 친구 수, 친구와 만나는 빈도와 같은 또래 변인이 있으나 이 변수들은 측정 시점에 따라 민감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 또래 변수들은 3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그 기간 동안의 자아개념 변화에 영향을 주는 내용 변수만 선정되었다.

### 3. 자료분석

자아개념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하기 위해 다층 모형(multilevel models)을 적용하였다. 다층모형은 흔히 HLM(hierarchical linear models)이라고도 한다. 다층모형에서는 1단계에서는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한다. 선형모형의 예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text{단계: } Y_{it} = \pi_{0i} + \pi_{1i}Z_{it} + e_{it}, \quad e_{it} \sim N(0, \sigma^2)$$

위 식에서  $Y_{it}$ 는 개인  $i$ 의 시점  $t$ 에서의 측정치를 나타내며,  $Z_{it}$ 는 개인  $i$ 의 측정시점에 따른 시간 코딩값이 된다. 시간변수  $Z$ 의 첨자  $i$ 는 개인에 따라서 측정횟수와 측정시점이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초기시점을 0으로 코딩하게 되면  $\pi_{0i}$ 는 개인  $i$ 의 초기치(initial status)를 나타내고  $\pi_{1i}$ 는 변화율(change rate)이 된다.  $e_{it}$ 는 시점  $t$ 에서의 개인  $i$ 에 대한 오차이다.  $e_{it} \sim N(0, \sigma^2)$ 는  $e_{it}$ 가 평균이 0, 공통분산  $\sigma^2$ 를 가지는 정상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나타낸다.

$$2\text{단계: } \begin{aligned} \pi_{0i} &= \beta_{00} + r_{0i}, \\ \pi_{1i} &= \beta_{10} + r_{1i} \end{aligned}$$

위 식에서  $\beta_{00}$ 와  $\beta_{10}$ 은 각각 초기치와 변화율의 전체평균을 나타낸다.  $r_{0i}$ 와  $r_{1i}$ 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인  $i$ 의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나타낸다. 이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강하면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한다.  $k$ 개의 독립변수( $X$ )가 있는 경우 위 식은 각각

$$\begin{aligned} \pi_{0i} &= \beta_{00} + \sum_{q=1}^k \beta_{0q} X_{0qi} + r_{0i}, \\ \pi_{1i} &= \beta_{10} + \sum_{q=1}^k \beta_{1q} X_{1qi} + r_{1i} \end{aligned}$$



이 된다.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분산-공분산 행렬  $T$ 는 아래와 같다.

$$T = \begin{bmatrix} \tau_{00} & \tau_{01} \\ \tau_{10} & \tau_{11} \end{bmatrix}$$

여기서  $\tau_{00}$ 과  $\tau_{01}$ 은 각각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을 나타낸다.  $\tau_{01} = \tau_{10}$ 은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을 나타낸다. 이 값을 표준화시키면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계수 ( $\tau_{10}'$ 으로 표시)가 된다. 다층모형은 HLM 6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 III. 연구결과

#### 1.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기술 통계치에 의하면 중2에서 고1 사이에 자아개념은 남녀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매 시점에서 남학생의 자아개념이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 부모의 애정과 이해는 <표 2>의 문항 1, 2, 3번의 평균, 부모와의 대화는 문항 4, 5, 6번의 평균, 부모의 외출감독은 문항7, 8, 9, 10번의 평균, 부모간의 불화는 문항 11, 12번의 평균, 부모의 학대는 문항 13, 14번의 평균이다. 따라서 부모변수의 평균은 하위 문항평균의 평균이 된다.

부모와 또래 관련 변수에는 결측치가 없으나 자아개념은 종단자료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결측치가 증가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1, 2차 년도에는 1725명이 모두 응답하였지만, 3차 년도에는 1572명이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1, 2차 년도에는 1725명이 모두 응답하였지만, 3차 년도에는 1553명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층모형에서는 모든 개인이 모든 측정 시점에서 모두 응답한 완전자료(complete data)가 필수는 아니다. 따라서 불완전 사례(incomplete cases)도 자료분석시 제외되지는 않았다.

&lt;표 3&gt; 자아개념, 부모, 또래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            | 남    |      | 여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자아개념1      | 3.20 | .61  | 3.12 | .63  |
| 자아개념2      | 3.27 | .64  | 3.19 | .62  |
| 자아개념3      | 3.34 | .61  | 3.30 | .60  |
| 부모의 애정과 이해 | 3.45 | .77  | 3.41 | .81  |
| 부모와의 대화    | 3.10 | .88  | 3.40 | .93  |
| 부모의 외출감독   | 3.11 | .85  | 3.33 | .87  |
| 부모간의 불화    | 1.82 | .89  | 1.88 | .96  |
| 부모의 학대     | 1.76 | .89  | 1.70 | .89  |
| 또래관계       | 3.95 | .88  | 3.89 | .84  |

## 2. 다층모형

### 1) 선형모형의 적용

자아개념에 있어서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추정하기 위해 남녀집단에 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자아개념은 위의 <표 1>에 나오는 6 문항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이 결과는 <표 4>와 같다. 시간 값은 중2, 중3, 고1을 각각 0, 1, 2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pi_{0i}$ 은 초기치(즉, 중2)의 의미를 갖는다.

&lt;표 4&gt; 선형모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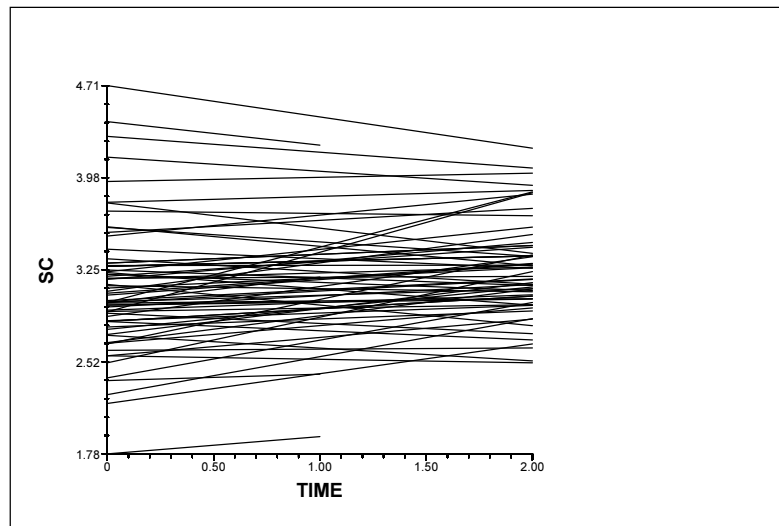
|              | 남      |       | 여      |       |
|--------------|--------|-------|--------|-------|
|              | 계수     | 표준오차  | 계수     | 표준오차  |
| $\beta_{00}$ | 3.201* | 0.016 | 3.117* | 0.016 |
| $\beta_{10}$ | 0.069* | 0.008 | 0.085* | 0.008 |
| $\tau_{00}$  | 0.307* |       | 0.351* |       |
| $\tau_{11}$  | 0.048* |       | 0.054* |       |
| $\tau_{10}'$ | -0.587 |       | -0.575 |       |

\*는 유의도 수준 0.05에서 유의함

결과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아개념의 평균 초기치(중2)는 3.201이며 평균 변화율은 0.069이다. 평균 변화율은 정적으로 유의하므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중2에서 고1의 3년간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다.  $\tau_{00}$ 과  $\tau_{01}$ 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자아개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au_{10}$ '의 값이 부적상관이므로 중2때 자아개념이 높았던 청소년은 낮았던 청소년에 비해 그 이후 증가율이 약했거나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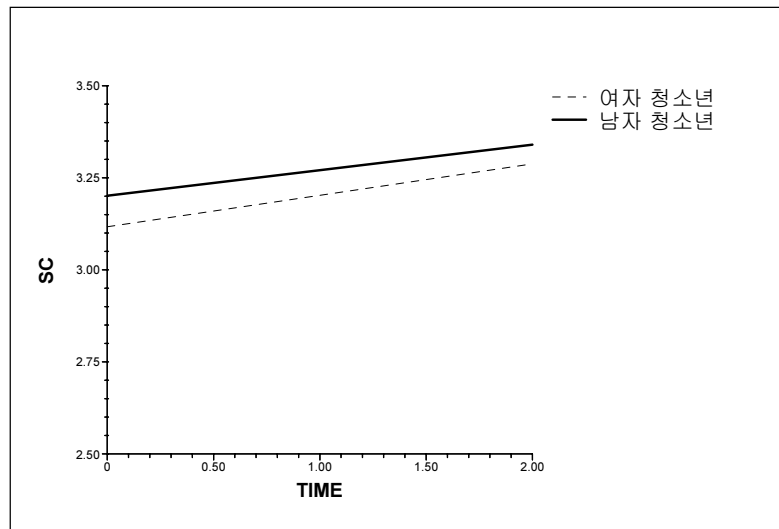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아개념의 평균 초기치는 3.117이며 평균 변화율은 0.085이다. 평균 변화율은 정적으로 유의하므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중2에서 고1의 3년간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다.  $\tau_{00}$ 과  $\tau_{01}$ 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자아개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au_{10}$ '의 값이 부적상관이므로 중2때 자아개념이 높았던 청소년은 낮았던 청소년에 비해 그 이후 증가율이 증가율이 약했거나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남녀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이 그래프는 전체 표본중 일부를 무선표집하여 모형에서 추정된 값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다.



[그림 1] 자아개념에 있어서의 개인차

위 그래프에 의하면 예외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아개념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에서 추정된 초기치와 변화율의 집단 평균을 이용하여 남녀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변화추세를 그린 그래프가 [그림 2]에 나와 있다.



[그림 2] 남녀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함수

위 그래프에 의하면 중2에서 고1까지의 기간 동안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자아개념의 정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의 남녀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2단계 모형에 성별변수를 추가하였다. 2단계 모형은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text{2단계: } \pi_{0i} &= \beta_{00} + \beta_{01}X_i + r_{0i} \\ \pi_{1i} &= \beta_{10} + \beta_{11}X_i + r_{1i} \end{aligned}$$

여기서  $X$ 변수는 성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서 남자 청소년을 1, 여자 청소년을 0으로 각각 코딩하였다. 이 결과는 <표 5>에 나와 있다.

<표 5>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의 남녀차 검증결과

| 고정효과         | 계수 | 계수     | 표준오차  |
|--------------|----|--------|-------|
| $\beta_{00}$ | 절편 | 3.117* | 0.016 |
| $\beta_{01}$ | 성별 | 0.084* | 0.022 |
| $\beta_{10}$ | 절편 | 0.085* | 0.008 |
| $\beta_{11}$ | 성별 | -0.016 | 0.011 |

이 결과에 의하면 중2때 남자의 자아개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의 변화율에 있어서는 여자집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 2) 조건모형

부모관계의 5차원과 또래관계가 남녀 청소년의 자아개념 초기치와 변화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영향력에 있어서 남녀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남녀 집단 각각에 부모변인(부모의 애정과 이해, 부모와의 대화, 부모의 외출감독, 부모간의 불화, 부모의 학대)과 또래관계변인을 투입한 다층모형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수가 투입된 모형을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s)이라고 한다. 조건모형의 1단계와 2단계 모형은 아래와 같다.

$$1\text{단계: } Y_{it} = \pi_{0i} + \pi_{1i}X_{it} + e_{it}, \quad e_{it} \sim N(0, \sigma^2)$$

$$2\text{단계: } \pi_{0i} = \beta_{00} + \beta_{01}(\text{부모애정}) + \beta_{02}(\text{부모대화}) + \beta_{03}(\text{부모감독}) \\ + \beta_{04}(\text{부모간불화}) + \beta_{05}(\text{부모학대}) + \beta_{06}(\text{친구관계}) + r_{0i}$$

$$\pi_{1i} = \beta_{10} + \beta_{11}(\text{부모애정}) + \beta_{12}(\text{부모대화}) + \beta_{13}(\text{부모감독}) \\ + \beta_{14}(\text{부모간불화}) + \beta_{15}(\text{부모학대}) + \beta_{16}(\text{친구관계}) + r_{1i}$$

위 식에서는 편의상 부모와 또래변인 옆에 첨자  $i$ 를 생략하였다. 남녀 두집단에 대한 조건모형의 결과는 아래 <표 6>과 <표 7>에 나와 있다.

<표 6> 초기치에 대한 부모와 또래효과

| 고정효과         |         | 남       |       | 여       |       |
|--------------|---------|---------|-------|---------|-------|
|              |         | 계수      | 표준오차  | 계수      | 표준오차  |
| $\beta_{00}$ | 절편      | 3.217*  | 0.015 | 3.115*  | 0.015 |
| $\beta_{01}$ | 부모의 애정  | 0.082*  | 0.026 | 0.231*  | 0.026 |
| $\beta_{02}$ | 부모와의 대화 | 0.043   | 0.023 | -0.025  | 0.022 |
| $\beta_{03}$ | 부모의 감독  | 0.075*  | 0.020 | 0.085*  | 0.019 |
| $\beta_{04}$ | 부모간의 불화 | 0.002   | 0.020 | -0.038* | 0.018 |
| $\beta_{05}$ | 부모의 학대  | -0.110* | 0.020 | -0.063* | 0.020 |
| $\beta_{06}$ | 또래관계    | 0.080*  | 0.017 | 0.098*  | 0.017 |

<표 7> 변화율에 대한 부모와 또래효과

| 고정효과         |         | 남       |       | 여       |       |
|--------------|---------|---------|-------|---------|-------|
|              |         | 계수      | 표준오차  | 계수      | 표준오차  |
| $\beta_{10}$ | 절편      | 0.064   | 0.009 | 0.863   | 0.008 |
| $\beta_{11}$ | 부모의 애정  | -0.014  | 0.015 | -0.051* | 0.014 |
| $\beta_{12}$ | 부모와의 대화 | -0.010  | 0.013 | -0.003  | 0.010 |
| $\beta_{13}$ | 부모의 감독  | -0.024* | 0.011 | -0.009  | 0.011 |
| $\beta_{14}$ | 부모간의 불화 | -0.013  | 0.011 | -0.005  | 0.010 |
| $\beta_{15}$ | 부모의 학대  | 0.035*  | 0.011 | 0.017   | 0.011 |
| $\beta_{16}$ | 또래관계    | -0.010  | 0.010 | -0.009  | 0.010 |

<표 6>과 <표 7>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초기치에는 부모의 애정과 이해, 부모의 외출감독, 부모의 학대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애정과 이해, 부모의 외출감독 효과는 정적으로 부모의 학대 효과는 부적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또래관계도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부모간의 불화, 부모와의 대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2에서 고1 사이의 3년간의 변화율에 부모의 외출감독 효과는 부적으로 부모의

학대 효과는 정적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외출감독을 많이 할수록 반대의 경우에 비해 자아개념이 덜 증가(또는 감소)하고 부모의 학대가 심할수록 자아개념이 더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단지 외출감독과 학대가 자아개념의 초기치와 강한 관련이 있어서 나타난 것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학대의 예를 들면, 학대를 받는 청소년의 경우 자아개념의 초기치가 낮고 초기치가 너무 낮음으로 인해 증가세가 더 강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기치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각 변수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이 모형의  $\pi_{0i}$ ,  $\pi_{1i}$ 에 대한 식은 위의 조건모형과 동일하고  $\pi_{1i}$ 에 대한 식만 초기치( $\pi_{0i}$ )를 포함하므로 아래와 같다.

$$\pi_{1i} = \gamma_{10} + \gamma_{11}(\text{부모애정}) + \gamma_{12}(\text{부모대화}) + \gamma_{13}(\text{부모감독}) + \gamma_{14}(\text{부모간불화}) \\ + \gamma_{15}(\text{부모학대}) + \gamma_{16}(\text{친구관계}) + \gamma_{17}(\pi_{0i}) + r_{1i}$$

초기치를 통제된 상태에서 각 변수의 변화율에 대한 영향은 HLM 프로그램의 잠재회귀(latent regression)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초기치의 영향을 통제된 결과 부모관계 변수와 또래관계 변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단지 초기치만 변화율에 부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8> 변화율에 대한 부모와 또래효과 (초기치 통제)

|               |                   | 남       |       | 여       |       |
|---------------|-------------------|---------|-------|---------|-------|
| 고정효과          |                   | 계수      | 표준오차  | 계수      | 표준오차  |
| $\gamma_{10}$ | 절편                | 0.814   | 0.060 | 0.824   | 0.048 |
| $\gamma_{11}$ | 부모의 애정            | 0.050   | 0.012 | 0.003   | 0.012 |
| $\gamma_{12}$ | 부모와의 대화           | -0.00   | 0.011 | -0.009  | 0.010 |
| $\gamma_{13}$ | 부모의 감독            | -0.070  | 0.009 | 0.011   | 0.009 |
| $\gamma_{14}$ | 부모간의 불화           | -0.013  | 0.009 | -0.014* | 0.008 |
| $\gamma_{15}$ | 부모의 학대            | 0.009   | 0.009 | 0.002   | 0.009 |
| $\gamma_{16}$ | 또래관계              | -0.233  | 0.008 | 0.014*  | 0.008 |
| $\gamma_{17}$ | 초기치( $\pi_{0i}$ ) | -0.233* | 0.018 | -0.240* | 0.015 |

〈표 6〉에 의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초기치에는 부모의 애정과 이해, 부모의 외출감독, 부모의 학대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애정과 이해, 부모의 외출감독 효과는 정적으로 부모간의 불화, 부모의 학대 효과는 부적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또래관계도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부모와의 대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8〉에 의하면, 초기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수의 변화율에 대한 영향을 잠재회귀(latent regression)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 부모간의 불화는 부적인 효과를, 또래관계는 정적인 효과를 각각 나타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부모와 또래요인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횡단적 연구방법상에서 다른 연령집단을 비교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종단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형태와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층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즉, 중2, 중3, 고1로 학년과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아개념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나타냈다. 이는 초등학교와 대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중고생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보고하는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의미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이진화·전경숙, 1995; 최정미·김미란, 2003; Mendelson & White, 1985; Rosenberg, 1985). 선행연구에서 초등학교보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더 낮은 자아개념을 보이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점차 연령증가에 따라 자아개념도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V형 발달현상을 보이는 이유로 15-16세 전후로 자아개념이 가장 혼돈을 겪는 시기이고 그 이후에는 점차 자아통합이 이루어지 것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중2, 중3, 고1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자아개



념변화를 나타낸 것과 제한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료의 제약으로 중1이전이나 고2이후 시기의 증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퇴행을 거친후 증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중2이후에는 증가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 제한적으로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횡단적 연구를 통해 연령에 따른 변화를 추론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종단적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이므로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자아개념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아개념 수준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년간의 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은 변화를 보였다. 즉 평균치를 볼때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자아개념을 보였으나, 3년간 변화양상을 비교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자아개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 혹은 낮다, 또는 차이가 없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주된 연구결과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는 것이었다(이건만 1995; 이진화·전경숙, 1995; Baldwin, & Hoffmann, 2002; Cole et al., 1999; Mboya, 1999).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자아개념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영역에 따라 성별에 따른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주로 남학생은 신체적 및 운동적 영역, 성취영역, 리더십 등에서 높은 수행을 보였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정서영역, 친밀감,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여학생이 높거나 성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특히 낮은 경향이 컸다. Cole과 그의 동료들(1999)은 남녀간의 차이가 비록 작은 수치이나 일관된 경향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자아개념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유능감, 성취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남학생에게는 보다 성취지향적인 사회적 역할기대를 더 강하게 하고 여학생에게는 친화력, 수용적, 정서적인 따뜻함 등을 기대하는 대인관계지향적 역할기대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와 같이 유능감, 성취지향적 자아개념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육에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남녀가 다른 역할기대를 요구받아, 그로 인한 자아개념도 달리 획득된다면 2차적으로 진로나 진학에 있어서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이기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Cole et al., 1999).

셋째, 자아개념변화에 대한 부모, 또래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초기치에 대한 부모와 또래의 영향을 살펴보았더니, 남녀 모두에서 부모의 거의 모든 하위요인, 또래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대화, 부모간의 불화 하위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대화 하위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2때의 횡단적 분석과 같은 것으로 중2때에는 각 하위요인들이 대부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부모와 또래가 중요한 타인으로 자아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 결과였다(이사라·박혜원, 2005; 이순형·이영미, 1993; Bukowski et al., 1989; Chubb et al., 1997; Hay & Ashman, 2003; McCormick & Kennedy, 1994; Robert & Bengston, 1996; Rosenberg, 1985; Vandell et al., 1994).

그리고, 자아개념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또래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초기치를 통제한 후 자아개념 변화율에 대한 부모, 또래 하위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유의한 요인이 하나도 없었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간 불화, 또래관계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 불화는 부정적 효과를, 또래관계는 정적인 효과를 각각 나타냈다. 이는 여학생의 자아개념이 변화하는 있어서 부모간의 불화, 가족간 갈등, 부부간 갈등이 많을 수록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자아개념의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부갈등이나 부부폭력 등이 있을 때, 부부사이가 좋지 않을 때 청소년기 자녀가 불안과 긴장을 하고 불만을 증대시켜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며,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박재산·문재우, 2006).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나 또래관계가 개인내의 순수한 자아개념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는 다양한 논의를 가능케 한다. 중2부터 고1때는 실제 부모로부터 또래로 애착이 이동하는 시기로 또래집단이 매우 중요한 소속집단이 되는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또래관계가 넓고 얕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 또, 최근 인터넷 사용, 인터넷 게임 등으로 대인관계에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양상 중 인터넷사용, 인터넷 게임 등의 영향으로 실제 대인관계, 또래관계가 점차 소원해져서 예전과 달리 또래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

등이 부모와 또래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설명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이진화·전경숙, 1995).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간의 불화와 또래관계가 자아개념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부부관계, 가족관계, 또래관계 등에서 친밀감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으로 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자아개념발달에 있어서 정서적 영역, 대인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서적 친밀감이 부모간의 불화의 실제적 정도보다 이를 청소년이 지각하는 정도가 자아개념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재산·문재우, 2006)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횡단적 접근에서 벗어나 종단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제 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또래요인을 살펴볼 수 있었고, 성별에 따른 다른 양상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첫째, 부모관계나 또래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의 한계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둘째, 3년간의 종단연구로 청소년의 전체적 발달단계적 시점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동시집단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다른 세대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단지 횡단적 연구로 추론해왔던 많은 연구문제들에 대해서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많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청소년의 발달적 관점에서 설명되지 못한 많은 부분들에 유용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혜진, 김경희, 염순교, 조주연, 함미영(2005). 남자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양상과 성역할 정체성 관계. *청소년학연구*, 12(4), 19-38.
- 김계현, 김동일, 김봉환, 김창대, 김혜숙, 남상인, 조한익(2003).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 김기정 역(1995). *자아의 발달*. 서울: 문음사.
- 김선희(2006).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호, 유영애(200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및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1(2), 341-373.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박재산, 문재우(2006).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내 갈등과 건강보호행동으로서의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인과관계분석. *건강증진학회지*, 23(2), 91-107.
- 오원정(1999). 친구관계의 질 및 친구관계망과 아동의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고윤주(1999). 대학생이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기능 및 친구관계망의 일반적 변인간의 관계. *교육학연구*, 37(3), 201-219.
- 이사라, 박혜원(2005). 부모, 또래, 교사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국 조선족과 한국 아동 및 청소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5), 163-181.
- 이순형, 이영미(1993).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불일치. *청소년학연구*, 1(1), 59-75.
- 이진화, 전경숙(1995).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6), 225-245.
- 신은영, 김누리(2004). 청소년기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탐색.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al*, vol.13, No.2, 185-199.
- 손승영(2000).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의식차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1(2), 129-152.
- 최미경(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아의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정미, 김미란(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홍세희, 김지연(2006). 비연속시간 사건사 분석을 적용한 청소년의 최초의 문제행동 발생시점에 대한 부모영향과 성별의 상호작용 검증. *교육심리연구*, 20, 137-154.
- Baldwin, S. A., & Hoffmann, J. P.(2002). The Dynamics of Self-Esteem: A Growth-Curve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 101-113.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4, 1-103.
- Bukowski, W. M., & Hoza, B.(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15-45). New York : Wiley.
- Chubb N. H., Fertman, C. I., Ross, J. L.(1997). Adolescent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a longitudinal study of gender and age differences. *Adolescence*, 32, 113-129.
- Cole, D. A., Martin, J. M., Peeke, L. A., Seroczynski, A.D., & Fier, J.(1999). Children's over and underestimation of academic competence: A longitudinal study of gender differences, depression, and anxiety. *Child Development*, 70, 459-473.
- Cooley, C. H.(1920).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 Scribner
- Eric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Hay, I. & Ashman, A. F.(2003).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emotional stability and general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parents, peers, and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50(1), 2003.
- Marsh, H. W.(1990). A multidimensional, hierarchical model of self-concept: Theoretical and empirical justific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 77-172.
- Mboya, M.(1999). Multiple Dimensions of Adolescent Self-concept: Relations with Age, Gender and Scholastic Measur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 McCormick, C. B & Kennedy, J. H.(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1-18.

- McGuire, W. J.(1983). A contextualist theory of knowledge: Its implications for innovationas and reform in psychological research. In L. Berkob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1-47. New York : Academic Press.
- Mead, G.(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ndelson, B. K., & White, D. R.(1985). Developoment of self-body-esteem in overweight youngsters. *Develpomenta Psychology*, 16, 1-47.
- Robert, R. E. L. & Bengston, V. L.(1996). Affective ties to parents in early adulthood and self-esteem across 20 year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9, 96-106.
- Rogers, C. R.(1951). client-centered therapy : It's current practice, implications and theory. Boston: Houghton Mifflin.
- Rosenberg, M.(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hy(Ed.), *The development of self* (p. 55-121). Orlando, FL: Academic Press.
- Shaffer, D. R.(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Belmont, CA, USA: Wadworth/Thomson Learning.
- Vandell, D. L. & Hembree, S. E.(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0, 461-477.

## ABSTRACT

### Estimating Adolescents' Changes in Self-Concept : Tests of the Effects of Parents and Peer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Changes

Hong, Se-Hee\* · Park, Eon-Ha\* · Hong, Hye-Young\*

In the present study, employing multilevel models, change patterns in adolescents' self-concept were estimated, and parent and peer effects on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change were tested. Specifically, we tested whether the effects were constant across genders using the dataset of the Korean Youth Panel Study (Cohorts of middle school 2nd-graders). Results showed that boys showed higher level of self concept across the three years (from the middle school 2nd grade to the high school 1st grade). However, both boys and girls' self-concept increased significantly. For both genders, most of the parent and peer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itial status (the middle school 2nd grade). However, controlling for the initial status, no variabl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change rates for boys. Parental conjugal discord had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he change rates and good relationships with peers showed positive effect for girls.

**Key Words** : change in self-concept, multilevel models, parents and peer effects

투고일 : 10월 29일, 심사일 : 12월 11일, 심사완료일 : 12월 18일

---

\* Yonsei University